

# “내가 진짜 검사”라는 ‘정치 검사’들의 정신세계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중요한 선택지”라고 했다.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는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전 의원의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도 방해했고,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러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렇게

조국·최강욱 수사 방해한 이성윤 ‘검인 유착’ 허위 정보 흘린 신성식 자기들이 ‘진짜’라며 출마 선언 국민과 검사들을 바보로 아나

정권 수족처럼 움직인 대가로 요직을 섭렵했던 그가 이제 “윤석열 사단 청산”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한다.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신성식 검사장도 그에 못지않다. 문재인 정권이 부추긴 ‘검인 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려고 거짓 정보를 KBS에 흘린 혐의로 기소된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자 뒤늦게 사인했다. 피해자인 한동훈 전 검사장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당황해서 그랬다”며 혐의를 또 부인했다. 잡법들도

이러지는 않는다. 검사라고 하기조차 민망하다. 그런 사람이 ‘진짜 검사’라는 책까지 내고는 “가짜 검사들을 진짜 검사라고 자기 최면을 걸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철면피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는 출판기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자신이 수사를 지휘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한 말이다. 하지만 그 사건 수사 중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불거져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구속됐다. 이를 포함해 이 대표는 7가지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받고 있다. 그중 ‘위증 교사’는 위증한 사람도 인정된 상태다. 그런데 어떻게 “먼지 한 톨 없다”고 할 수 있나. 이 대표에게 아부하려고 수사 검사들을 모욕한 것이다.

신 검사장은 민주당에 입당해 고향인 순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공천되면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성윤 검사장도 조국 신당을 기웃거리다 비례 대표로 의원 배치를 달지 못한다. 인물이나 대의보다 진영이나 지역이 당락을 좌우하는 선거판에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치 검사장의 성공이 필지는 모르지만 작은 나사못처럼 사회 환구석을 지탱하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에게 온 물을 던지는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성 178

## 마산 참복국

얼마 전 주문진 위판장에서 활어차에 가득 실리는 복어를 만났다. 강릉은 물론 강원도에서 복은 낚신 어류였다. 지금은 귀한 오징어를 대신할 만큼 어민들에게 효자다. 더구나 오징어잡이 비슷하게 채낚기포를 잡을 수 있으니 얼마나 대견하다. 저렴한 복을 구입하려면 주문진 어시장을 권한다. 이곳에서 잡힌 활복은 서울과 마산으로 간다. 복국은 부산, 마산, 통영, 여수 등이 유명하다. 남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소비되었던 탓이다. 그중 복국 본향이라면 마산을 꼽는다. 우리나라 유일한 복 요리 거리가 있다. 노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복국은 아무래도 아침 일찍, 심지어 새벽에 먹어야 맛이 있다. 술을 먹은 다음 날이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복으로는 참

복, 자주복, 까치복, 졸복, 검복, 복섬 등이 있고, 봄철 한강 하구에서 잡히는 비싼 황복도 있다. 가장 많이 찾는 복은 까치복이다. 마산어시장에 복국집이 많이 생겨난 것은 남해안에서 잡힌 복의 집산지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수은 변화 탓인지 동해안에서 복이 많이 잡히고 있다. 오징어는 귀해지고 복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통영에서 졸복국을 자주 만난다면, 마산에서는 참복과 까치복을 많이 이용한다. 졸복국은 작은 복섬으로 조리하는 복국이다. 까치복이나 참복은 자주복에 비하면 작지만, 복섬과 비교하면 대형 복이다. 복은 봄에 연안으로 올라왔다가 가을이면 먼바다로 이동한다. 참복은 검은색 등근 반점이 있고, 까치복은 서너 줄의 흰색 세로무늬가 있다.



복국은 ‘목숨과 바꿀 만한 맛’이라고 표현한다. 복은 내장, 알, 간, 눈, 피 등에 뱀독을 품고 있다. 반드시 복어를 조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손질해야 한다. 복국을 끓일 때 짭짤하게 넣어 할 부분이 내장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정소이다. 복국을 먹기 전에 나오는 짭짤로 입맛을 올리면 좋다. 복국의 육수를 만들 때 말린 복어 머리를 이용하기도 한다. 된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다진 마늘과 식초를 더한다. 여기에 미나리, 콩나물 외에 모자반을 올리면 맛이 좋다. 질긴 복어 껍질은 묵을 만들기도 한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비명 횡사’가 현실이 된 이재명黨

민주당이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해 공천 심사 때 갑질을 받을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비이재명계라고 한다. 31명 중 28명이 비명계라는 보도와 함께 ‘진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박용진·윤영찬 의원은 20일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고, 윤 의원은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이 대표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 한때 이 대표에게 맞선 사람이 모두 공천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비명계 중진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하위 20%에 포함됐다. 통보를 받고 탈당을 선언했다. 세 사람은 “민주당이 이 대표 사당이 됐다”고 했다.

의정 활동 평가는 법안 대표 발의 건수, 각종 회의 참석률 등이 기준이다. 참여연대 집계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법안을 107건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95%)와 본회의(93%) 참석률도 우수하다. 박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82건, 상임위 참석률 95%, 본회의 참석률 90%다. 윤 의원은 대표 발의 39건에 본회의와 상임위 참석률 모두 90%가 넘는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 발의 법안이 6건에 불과하다. 본회의 참석률은 86%지만 상임위 참석률은 35%로 여야 통틀어 꼴찌 수준이다.

김·박·윤 세 의원으로서 이 대표보다 월등한 점수를 받아야 할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세 의원은 나머지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주관적 평가에선 당권을 쥔

친명계가 얼마든지 점수를 만들 수 있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며 도입한 의원 평가 제도를 친명 지도부가 비명계 정적을 처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공천관리위나 전략공천위를 무시하고 측근 몇 명과 ‘밀실 회의’를 해 공천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지도부는 부인했지만 임혁백 공천위원장이 그 밀실 회의에서 공천 배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의원에게 전화로 걸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사과했다고 한다. 사실상 밀실 회의의 존재를 시인한 것 아닌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측근들로 구성된 비선 조직이 공천에 관여한다는 논란도 일었다. 홍영표·송갑석 의원 등은 지역구에서 현역인 자기들을 빼고 친명계 원외 인사로 집어넣은 정채별명 여론조사가 들었다며 이 대표 비선 측근들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공천 과정에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닌 대표 측근들이 개입했다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공직 후보자 추천권은 정당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당이고, 국회의원은 고위 공직자다. 공천을 당내 행사라고 볼 수 없으며 공직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반대파를 제거하고 대표 개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공천권을 쓰는 것은 국민 세금을 쓰는 공당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대표는 여야 합의로 정해야 할 선거 제도를 혼자서 정했고, 이어 국민의 대표자도 자기 마음대로 고르겠다고 한다. ‘비명 횡사’가 실제 현실이 된 ‘이재명黨’의 현실이다.



### ‘개혁’ 야합 11일 만에 파탄, 남은 건 6억 국고 보조금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가 어제 개혁신당과의 합당 협회를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름으로 전격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이다. 이들은 “거대 양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양당 극한 정쟁의 폐해에 공감한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 11일 만의 결별은 이들을 허탈하게 했다. 한국 정당사에 전례가 없을 기록일 것이다.

개혁을 내건 이들이 짧은 동거 기간 보여준 것은 꿈뿐이었다.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의원을 선거 보조금 지급 기준일 하루 전 입당시켰다.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이면 보조금이 크게 오른다. 개혁신당에 이제 현역 의원이 4명 남게 돼 6억6000만원 국고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사라졌지만 보조금은 반환할 법적 규정이 없다. 형벌을 적용한다면 ‘보조금 사기’란 말을 들을 수도 있다. 11일만 개혁신당 공동대표로 활동한 이낙연 대표가

실제론 개혁신당에 입당도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를 각각 자낸 두 사람에게선 당초 ‘반(反)윤석열’ ‘반(反)이재명’ 말고는 어떤 공통점도 찾기 어려웠다. 이념과 철학, 정책과 지지 기반이 단편인 이들이 뭉친다고 할 때부터 ‘총선 기로 3번을 노린 야합’이란 지적이 많았다. 합당 선언 이후에도 통합 노력보다는 반목·충돌하는 모습만 노출했다. 선거 주도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 지휘권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파국을 맞았다. 이제 와서 이낙연 대표는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했고, 이준석 대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정치 이념과 정책이 탄탄인 사람들이 선거 투기를 하듯이 뭉쳤다.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내걸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

### 北 상대 손배소 기각, 너무 지나친 기계적 잣대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유족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장을 올리면 소송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현실적으로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쓰는 제도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사건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몇 년 전 국군 포로와 전사 남북가족 등이 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시송달을 받아들여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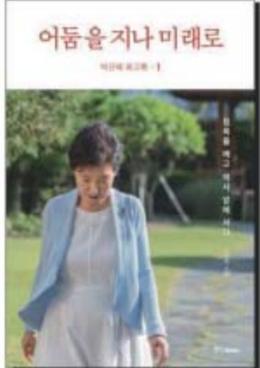
헌법원은 당사자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한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유족 측이 북한 주소를 알고 있고,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여서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분단된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다. 법에 얽매어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했다. 현재 국군 포로 등은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뒤 북한에 출자작권료를 보관 중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경문협의 돈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 개인과 단체 돈이라는 취지다. 전 주민이 정권의 노예인 북에서 무슨 개인 저작권이 있다. 너무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법원이 이제 공시송달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의라고 할 수 없다.

미국 법원은 2015년 북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청년 오토 워비어의 부모가 낸 소송을 여러 차례 받아들여 배상 판결을 내리고, 배상금 충당을 위해 억류된 북한 화물선 강제 매각도 승인했다. 우리 법원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르다. 이러니 김정은이 반인도적 만행에 부담을 느끼겠나.

# 박근혜, 통일전선·내부분열·가짜뉴스에 당했다 ... 명예회복은 총선승리로

**‘회고록’ 읽어보니**  
★ 머리 내밀고 (기회주의 중간파 / 투항적·자폐적·퇴영적 보수)  
★ 불씨 지피고 (극좌)  
★ 기름 붓고 (유승민 김무성 등 새누리 변절자)  
★ 부채질 하고 (좌파·일부보수 매체연합 가짜뉴스)  
★ 도망가고 (청와대 비서들) ★ 반란군에 성문 열었다 (현재)



다른 일부는 [진박(眞) 粉] 감별사 임을 자처했다. “내 이름을 빌려 호가 호위하는 일도 꽤 있었다”라고 한 부분. 그들은 누구에게 전화해 “이건 대통령의 뜻이다. 그 지역에 출마하지 말라”라고 공갈쳤다. ★ 자폐적 보수 ★ 퇴영적 보수의 출현이었다.

**[대통령 박근혜의 통한(痛恨)]**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근혜 회고록〉 1, 2를 단숨에 읽었다. 인간적으로는, 일국의 대통령이기 전에 한 [인격 박근혜]가 겪었던 온갖 풍상(風霜)이 아프게 와 닿는다.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정부를 포함한 모든 자유·보수·우파 쇠망(衰亡)의 최대 원인은 [내부 분열]이라고 한 [대통령 박근혜의 통한(痛恨)]이 절절하다.

20대 총선 공천에서 저자는, [친박·비박] 운운에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분열했다. 일부는 원칙보다 타협을 선호했다. 좌파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조할 정도로. ★ 투항적 보수 ★ 기회주의 중간파의 출현이었다.

1900년대 초부터 국제공산주의는 [통일전선] 전술을 폈다. 공산당이 이끄는 수직적 연합에, 적잖은 중간파들이 멧도 모르고 가담했다. 동유럽이 그렇게 넘어갔다. 같은 시기 남한에서도 중간파들이,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건국 노선에 기름 쓰고 반대했다. 그들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란 국판에 우~ 물려갔다. 김일성·박헌영의 6.25 남침 속내를 덮어준 꼴이었다.

**[세월호 7시간과 [탄핵 정변]]**  
이 점은 2014년 [세월호 7시간]때, 그리고 2016년 [탄핵 정변]때도 고대로 되풀이되었다.

[읽어버린 7시간]을 두고 일부 매체들은 ★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 ★ 청와대에서 컵을 했는지 ★ 최서원 태블릿 PC가 어땠는지 온갖 [가짜 뉴스]를 홍수처럼 퍼부었다.

언론이 미치자, 균중이 핏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 차례씩 사과했다

좌파는 그럴수록 더욱 [거국중립 내각]에서 [오로지 탄핵]으로 치달았다.

★ 청와대 비서들이 도망가고, 현재(憲政)가 반란군에 성문을 활짝 열었다.

[탄핵 정변]은 이렇듯 좌파가 완성한 것이, 아니었다.

★ 극좌가 지핀 불씨에 ★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가 기름을 들이부은 것이었다. ★ 여기다 [가짜 뉴스]가 바람을 불어왔다. ★ 평양성 문은 당군(唐軍)이 연 것이, 아니었다. 고구려 연개소문 아들 남건(南建) 부하가 열어준 것이었다.

**그래도 다시 나라 걱정**  
기막힌 세월을 뒤로 한 채 저자는 이제, 서정주의 시(詩) 〈국화 옆에서〉 같은 모습으로 고즈넉이 앉았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면 /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 인제는 돌아와 겨울 앞에 선 /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그러면서 다시 나라를 걱정하는 마무리 한 마디.

“그분(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국민 통합의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었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 회복될 것이다. 4.10 총선에서 자유 진영이 이기면.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간극전쟁 관망(觀望) - 이명준〉  
‘이승만은 민족의 속죄명 - 지배층 배성의 비겁한 전(前)조선 DNA에 배척 당했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합령으로 2024년 2월 19일 게재 되었습니다.